

광주시, 13일 사회적 가치소비 '푸룻마켓' 연다



하이,푸룻마켓 포스터

/광주광역시 시청 제공

시립수목원서 오전 11시부터...사회적경제기업 30여곳 참여
수공예품·먹거리 선보이고 공예 체험·비눗방울쇼 등 펼쳐져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양과동 광주시립수목원에서 자연과 사회적 가치가 어우러지는 시민 참여형 사회적경제 마켓 '하이, 푸룻마켓'을 개최한다.

'하이, 푸룻마켓'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광역시환경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 대표 가치소비 마켓이다. 이 행사는 시민들이 시립수목원의 자연을 즐기며 사회적경제 가치와 친환경 소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하이, 푸룻마켓'은 2024년 첫 행사 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참여 규모와 방문객이 꾸준히 늘며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잇는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지역 3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업사이

클링 체험을 비롯해 수공예품, 먹거리 등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인다. 행사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방문객들에게 장바구니와 개인 텀블러 사용을 권장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주물럭 비누 만들기 ▲키캡 및 불펜 꾸미기 ▲슬라임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공예 체험 ▲비눗방울·풍선(별론)쇼 등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사전등록 이벤트, 현장 구매 합산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www.gjse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가 참여 기업에는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는 푸른 자연 속에서 착한 소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병두 노동일

자리정책관은 "이번 마켓은 시민이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주제로 참여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사회적경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를 통해 생산 과정과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를 소개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방문객들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활동 취지와 지역사회 기여 내용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상품과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수목원의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마켓은 휴식과 체험, 소비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행사로 운영된다. /이유빈 기자

현대차, '2027 아이오닉 5' 출시

현대자동차가 전체 트림 구성을 변경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2027 아이오닉 5'를 9일(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27 아이오닉 5의 롱레인지 모델을 ▲E-Lite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 ▲N Line 등 총 5개 트림으로 재편

하고,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E-Value+ 1개 트림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모던은 기존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일부 사양을 최적화한 트림으로 판매 가격이 160만 원 인하됐으며, 기존 프레스티지 트림의 사양을 최적화한 프리미엄 트림의

경우 90만 원 인하됐다. 인스퍼레이션은 고급 안전·편의 사양이 기본 적용된 최상위 신규 트림으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 ▲전방/측방/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등으로 구성된 '파킹 어시스트'와 ▲동승석 전동시트(레그레스트, 릴렉션 컴포트) ▲전좌석 시트 메모리 시스템 ▲2열 전동 슬라이딩 시트 등으로 구성된 '컴포트 플러스'가 기본 적용됐다.

이밖에도 현대차는 2027 아이오닉 5의 모든 트림에 테일게이트 비상램프를 추가하고 프리미엄 트림부터 100W USB 충전 포트를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2027 아이오닉 5의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후 기준 스탠다드 ▲E-Value+ 4,735만 원, 롱레인지 ▲E-Lite 5,064만 원 ▲모던 5,290만 원 ▲프리미엄 5,825만 원 ▲인스퍼레이션 6,150만 원 ▲N Line 5,945만 원이다.

(※ 2WD 기준) 서울시 기준으로 2027 아이오닉 5 롱레인지 모던 트림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고려하면 4,500만 원 대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는 2027 아이오닉 5 출시에 맞춰 6월 9일(화)부터 7월 31일(금)까지 2027 아이오닉 5를 구매한 고객 중 200명을 추첨해 디스플레이 테마 1종 구매권을 증정하는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현대 모빌리티 패스포트

인 오키나와 이벤트도 진행해 6월 14일(일)까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오키나와에서 아이오닉 5, 코나 일렉트릭 렌트 시 사용 가능한 13만 원 상당의 쿠폰(최고 보장 등급 자동차 보험 및 무제한 고속도로 통행 카드 지원)을 제공한다.

(※ 상세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 참조, <https://hyundaimobilitypassport.com/okinawa/ko>) /이유빈 기자

